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다시 점화

환경오염 처리 비용 원인자 부담토록 제도화
도 제도 도입놓고 대행기관과 추진방향 논의
하반기 도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관심 높아져

사실상 잠정 중단됐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 재추진에 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무엇보다 앞서 무산된 제도의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개최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중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대행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감대 확산사업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 인식 확산 필요성에 따라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도민·국민 공감 설명회 개최를 비롯 소규모 간담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올 하반기 중 도민설명회 개최를 목표로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대행기관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도입 논의가 수년째 답보상태인 만큼 도는 올해 안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일단 도는 이달 중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 동영상을 통해 전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동영상은 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된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도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은 5%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저수지로 변한 밭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강희만기자

국비 지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탄력’ 내년 설계비 10억 반영... 부지매입 등 선제 대응 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혁신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당국이 부지 매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토대로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정부에 산안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센터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사업비 290억원(국비 160, 도비 130)을 투입해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주대학교 인근에 부지 8812㎡, 연면적 8250㎡(지상 4, 지하 1층)의 규모로 들어선다. 센터에는 입주공간(50실)을 비롯해 기숙사, 코워킹(작업장이나 오피스를 공유하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스타일) 공간, 지원시설 등이 갖춰진다.

이번 국비 지원은 도가 사전에 도비 53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9개소에서 운영 중인 센터 건립사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점 등 제주지역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성사시켰다.

도와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3일 지역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로 개최했다. 도는 1차(10.2%)와 3차(73.7%)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위해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한 제주 지역경제 실태와 기업 수요조사 결과, 입지 후보지 분석, 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자문위원들은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설문조사와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센터 건립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7%가 센터 건립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도내 기업에 저렴한 입지 공급’(46.6%), 제주 창업·신산업 육성(42.9%), 지역균형발전(6.0%), 도의 기업에 도내 유치 가능(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센터 입지 의향을 묻는 설문에는 ‘적극 입주 고려 및 준공 후 입주’(57.8%)와 ‘입주 추이 관망’(36.3%), ‘입주하지 않겠다’(5.9%) 등의 응답을 차례로 내놨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도 “주소지 관계없이 보건소 등서 접종 가능”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민 모두가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당초 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 만 62세 이상 어르신(국가사업)을 대상

으로 무료 예방접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61세(도 자체사업)까지 추가해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지원백신도 기존 3가에서 4가로 변경했다.

예방접종 일정은 ▷2회 접종대상자(만 9세 미만의 인플루엔자 접

력이 없는 경우)는 9월 8일 ▷1회 접종대상자(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2일 ▷만 19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다.

2회 접종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이른 8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2회 접종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하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1회만 한 어린이이다. 1회 접종 후 4주 내에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그 외 1회

접종대상 어린이는 오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도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276개소)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64개소)에서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박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의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비 단계부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와관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2020년 제3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결과 총 21개 기업(115명)이 신청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도내에는 현

재 136개소(사회적기업 57, 예비사회적기업 79)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고용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행정시, 중간지원기관의 합동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달 중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 ‘2020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Jeju Booyoung Youth Center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경의 성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